

# 1. 동아리란

## | 동아리란 |

동아리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같이 활동하는 모임이다. 동아리의 소속에 따라 중앙동아리, 단대동아리, 과동아리로 나눌 수 있다.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학회,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밴드, 운동을 함께 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다. 자신이 본래 소속된 과반 공동체를 넘어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관심사를 발전시키며 마음 맞는 친구와 선후배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은 동아리 활동의 큰 장점!

### 도움말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열정이 가득한, 때로는 웃긴, 때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순간을 가져다 주는 대학생활의 진짜 보석이죠! 대학생이 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졌냐? 혹은 공부,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냐?

어느 경우라도 저는 동아리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 2. 인문대학 주요 동아리

### 밴드 야메\_JAME



17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대학 밴드 <JAME(야메)>입니다. 독일어에서 소리를 빌려 왔기 때문에 “야메”라고 읽습니다. 2003년 인문대학 독어독문과 밴드로 시작한 <JAME(야메)>는 성장하여 인문대학을 대표하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밴드부원 정기 모집은 매해 3월에 진행되며, 선발된 멤버들은 1년 반 동안 활동을 합니다. 현재는 14기 부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14기 멤버들과 함께, <JAME(야메)>는 지난 2016년 동안 총 3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매해 9월 개강 즈음하여 여는 정기 공연과 10월 동대문 밀리오레 야외무대에서 열린 <Vision Rock Festival>, 11월 숭실대학교 밴드 <양털틸트> & 인디밴드 <시만밴>과 함께한 연합공연의 무대를 거쳐 왔습니다. 특히 동대문에서 개최된 <Vision Rock Festival>에서는 실제 인디 씬에서 활약 중인 밴드와 함께하며 신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무대에 서는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JAME>의 멤버들이 뜻을 모은다면 그곳이 바로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생길만한 의문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1학기에는 왜 공연을 안 했나요?” 사실, 안 했다기보다 할 수 없었습니다. 14기에서 키보드를 맡아준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각자의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박자를 맞추고 깔끔한 소리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한 학기를 연습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무대에 나섰던 2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잘했나요? 아닙니다. 5개월 남짓한 연습시간으로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역시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치도록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실력까지 뛰어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무대 자체를 솔직하게 즐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밴드 <JAME>로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루실 줄 아는 악기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JAME> 멤버 모집 요건 중에 연주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연주할 줄 모른다고 밴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대신 밴드 활동에 대한 열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단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 ‘amator’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JAME> 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그럼, 3월 오디션 장소에서 부디 다시 만납시다.

15기 가장 최보라 (010-7521-3334)

## 축구 동아리 이스크라\_ISKRA



안녕하세요! 17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인문대 공식 축구동아리 이스크라(ISKRA)입니다. <ISKRA>는 수십 년 전 노어노문학과와 과동아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인문대 공식 축구 동아리로 성장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인문대 학장배 축구대회'를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총장배 축구대회',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ISKRA>는 일주일에 2번, 주중연습과 주말연습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중에는 기숙사 운동장에서 자체 연습과 미니게임으로 실력을 기르고,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대운동장에서 다른 축구 동아리와 친선경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다보면 선배들의 조언과 실전 경험으로 향상된 자신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축구와는 달리, 혼자가 아닌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팀워크 정신을 배우고 선후배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잡는 선배들도 없고 분위기도 무겁지 않아서 같이 공 몇 번 차다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ISKRA>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축구에 대한 열정입니다. <ISKRA>는 러시아어로 '불꽃'이라는 뜻인데요, 동아리 이름에 걸맞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동아리에 들어오는데 실력, 학번, 소속 단과대 제약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분들, 단순히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친구와 같이 오시면 더더욱 환영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실력불문! 단대불문! 학번불문!

**주장 임찬송 (010-2495-2365)**

**부주장 김태훈 (010-9150-3327)**

**장상수 (010-6660-7126)**

## 맑스주의 독서회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데 있다.” 맑스의 이 문구는 맑스 사후 20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맑스 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맑스에게 많은 오명을 남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투쟁적이며 공상적이지만 한 맑스. 그러나 그의 저작은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맑스와 맑스주의의 내용들, 독서회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독서회는 2012년도 맑스주의 원전을 읽는 작은 모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낭만부'라는 작은 모임에서 2013년도 처음으로 정식 동아리로 맑스주의 독서회가 등록되었으며, 그 이후로 2017년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기존에는 맑스주의 원전을 위주로 독서하였으나 최근부터는 맑스주의의 최신 저작과 논문들을 독서하고 있습니다.

독서회에서는 책 한 권을 정하고 이를 강독하며 모임을 진행합니다. 혼자 읽기 어려웠던 원전이나 최신 저작도 같이 강독하며 의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회에서는 책만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책을 덮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맑스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동아리방에서 텅굴다가도 맑스주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독서회가 지향하는 독서 모임의 모습입니다. 맑스주의란 책상 앞에 앉아 혼자 개념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할 때에야 비로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회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싶은 학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맑스주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줄 것입니다. 경제 제도와 국가 구성 요소들, 일상 속의 문화적 코드들까지 맑스주의는 이 세계 어디에든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세계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회장 최경민 (010-4162-3411)**

## 댄스동아리 혼또니 '혼자 또 춤추니'



<혼또니>는 인문대 혼성 어반 댄스동아리로 '혼자 또 춤추니'의 줄임말입니다. 평소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또 춤추기' 싫은 다양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오늘도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혼또니>는 어반댄스(Urban dance)라는 장르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반댄스는 정통 힙합에서 뺀어 나왔으며, 테크닉보다는 안무가의 개성을 바탕으로 노래가 가진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춤입니다. 쉽게 말해 음악의 가사나 비트, 분위기 등에 맞게 동작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장르로, 친숙한 방송 댄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반댄스 안무를 연습하여 공연에 서기도 하지만, 자신이 음악을 정해 자유롭게 안무를 창작하는 공연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안무를 만들어 공연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혼또니>의 자랑은 단체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원 전체가 매주 두 번씩 모여 연습하여, 매 정기공연에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소름 돋는 단체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또니>는 다양한 곡과 분위기의 춤을 추고 있으며, 정기공연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연, 외부 행사 공연 등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다양한 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연습이 없는 방학 때에도 동아리 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K-POP이나 창작안무를 연습하여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으로 땀 흘린 <혼또니>는 즐겁게 연습하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연 동아리로서의 성격을 띠기 전에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즐겁게 춤을 추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또니>는 공연 동아리로서 춤과 공연에 대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로 서로를 챙겨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오디션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되며, 3월 초 및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혼또니> 페이지를 검색해주세요! <혼또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금까지의 공연 영상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혼또니>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onddoni>

★ <혼또니> 유튜브 페이지 <https://www.youtube.com/channel/UCDZNDUehzgyF53pmC5pwUMA>

## 가톨릭 기도모임 FIAT



안녕하세요, 반가운 17학번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톨릭 기도모임 <FIAT>입니다. 이제 곧 봄별의 화사한 교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기쁩니다. 저희 FIAT 기도모임은 대학 시기의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작은 가톨릭 모임입니다.

‘FIAT’는 루카 복음에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라고 하신 응답에서 따 온 이름입니다. 하느님 뜻에 기꺼이 순명하며 사신 성모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인 셈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한 데 어울리는 곳입니다.

FIAT의 주요 활동은 목요정기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동아리방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예수회의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지도 신부님으로서 신앙 지도를 해주고 계시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아리를 직접 방문해 주십니다. 동아리방에서 신부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매우 특별하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학생활이란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함께 받아들인다면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불씨가 있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FIAT 동아리방: 인문대 5동 114호 (창가 가운데 자리)**

**목요정기모임(미사, 주일 복음 묵상 및 나눔, 생활나눔): 매주 목요일 PM 6:30 ~ 8:00**

**문의: 철학과 신용환 비오 (010-3174-0901, kevin4@snu.ac.kr)**

## 인기연 (인문대기독교인연합)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저희는 <인기연 (인문대기독교인연합)>입니다. <인기연>은 인문대 내 크리스천 학생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 건전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연합모임입니다. 단과대 기독교인연합들과 여러 선교 단체들이 속한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에도 포함되어 있는, 인증된 동아리랍니다.

<인기연>은 주 1회 점심 또는 저녁 시간에 모여 한 시간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는데, 일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화기애애함이 넘치는 게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나요? \*\_\*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모임들을 통해 인문대 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인문대 크리스천이라면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주중 모임 외에도 한 학기에 한번 '잠포(잠을 포기하고 밤새 노는 엠티!!)'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연>으로 모여,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한 학기에 한번, 항상 <인기연>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두 분의 교수님들과 만나 풍성한(!) 식사 교제를 하며 물심양면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feat. 교수님 찬스)

<인기연>에서 새내기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대학이라는 공간은 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에 대한 여러 고민과 의문과 어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함께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는 이미 그 과정을 겪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 주중에 학교에서의 삶과 주말에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즉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설레고 떨리는 대학 생활의 첫 걸음을 믿음의 공동체, <인기연>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기독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모임에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 모임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넉넉합니다.

<인기연>의 구체적인 모임 시간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섬김이 **홍혜림(010-7740-4084)**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 만나요~!!♡♡

## 중화문화카페 中韓朋友會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문대 동아리 <중화문화카페中韓朋友會>(a.k.a.중카)>입니다. <중화문화카페>는 학내의 중화권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중카는 중화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학생들과 한국 친구들과 교류를 원하는 중화권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공식어는 중국어지만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다른 언어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모임의 형식은 학기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조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학생과 중화권 학생의 1:1교류를 원칙으로 언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총 4~6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한 학기 동안 조별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수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별활동의 내용은 비교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각자의 문화탐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ex.중국 음식 체험, 한복 체험).

<중화문화카페>에는 다양한 중화권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화권이라고 하여 중국 대륙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닌 대만, 홍콩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을 좋아하며, 따라서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중화문화카페>에서는 다른 활동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런 외국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우정을 다질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매 학기 초이며, 중국어 실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과외를 받는 것을 넘어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해하며 뜻깊은 우정을 쌓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회장 이정선 (010-4144-6204)**